

## [취재] 2011 하반기 넷이벤츠 토론 ■ : 가트너

[종목] 컴퓨터 [분야] IT일반 [작성자] 류재용 [작성일] 2011.11.16. 23:46

2011년 11월 16일과 17일 양일 간의 일정으로, 태국 푸켓 소재 인디고 펄 리조트(Indigo Pearl Resort, Phuket, Thailand)에서 '2011 넷이벤츠 아시아 태평양 기자간담회(2011 NetEvents APAC Press Summit, 이하 넷이벤츠)'가 개최되었다. 지난 4월에 열린 상반기 행사에 이어 열린, 11월 정례 하반기 행사다.

넷이벤츠는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기업의 C 레벨 임원들과 관련 시장조사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업계 동향 및 각 기업의 전략 등을 소개하는 정기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IT 보안, 무선 기술, 영상 회의,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망, 통신 인프라 등 업계 이슈에 관한 기업 및 시장 조사기관의 발표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16일 넷이벤츠 네 번째 세션은 가트너 이안 키니(Ian Keene) 부사장이 '아시아 지역 키트렌드(원제 : In the HOT SEAT : The 5 Year Outlook for Networking & Telecoms Key Trends and Their Impact in Asia)'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 [취재] 2011 하반기 넷이벤츠 토론 III : 가트너

[종목] 컴퓨터 [분야] IT일반 [작성자] 류재용 [작성일] 2011.11.16. 23:46

2011년 11월 16일과 17일 양일 간의 일정으로, 태국 푸켓 소재 인디고 펄 리조트(Indigo Pearl Resort, Phuket, Thailand)에서 '2011 넷이벤츠 아시아태평양 기자간담회(2011 NetEvents APAC Press Summit, 이하 넷이벤츠)'가 개최되었다. 지난 4월에 열린 상반기 행사에 이어 열린, 11월 정례 하반기 행사다.

넷이벤츠는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기업의 C 레벨 임원들과 관련 시장조사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업계 동향 및 각 기업의 전략 등을 소개하는 정기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IT 보안, 무선 기술, 영상 회의,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망, 통신 인프라 등 업계 이슈에 관한 기업 및 시장 조사기관의 발표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16일 넷이벤츠 네 번째 세션은 가트너 이안 키니(Ian Keene) 부사장이 '아시아 지역 키 트렌드(원제 : In the HOT SEAT : The 5 Year Outlook for Networking & Telecoms Key Trends and Their Impact in Asia)'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 가트너 이안 키니(Ian Keene) 부사장

인터넷에서는 수 페타바이트 용량의 데이터가 통용되고 있다. 각국 정부들은 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 경제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통신사들은 초고속 인터넷이 수익모델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유선통신시장의 성장률은 대륙별로 독특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파이버채널이 대폭 성장하는 추세다. 멀티테넌트 건물 내에 기본 케이블로 도입 중이다. 포화상태인 국가들도 고속 지원 위해 이 쪽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는 GPON 기술이 한창 도입 중이다. 과거에는 EPON 이 쓰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 GPON 기술로 가고 있다. 그런데 다른 대륙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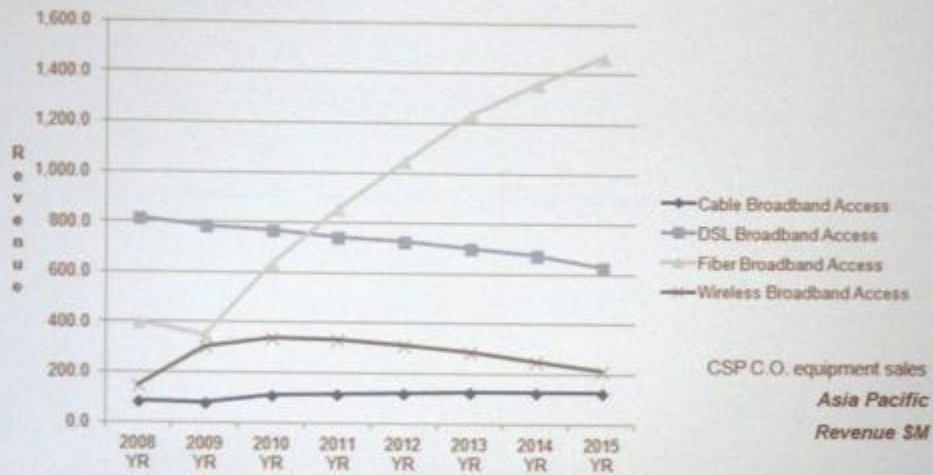
대표적으로 서유럽이 아시아와 다르다. 서유럽은 여전히 xDSL 기술이 기반이다. 이는 기존 인프라에서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하다보니 벌어진 현상이다. 여건으로 보면 대역폭이 부족한 것은 또 아니다. 10Mbps 정도인데, 가정에 100Mbps 속도가 제공되기도 한다. 시범사업으로 백터링 기술 등을 쓰는 고속화사업도 추진 중이다.

아태지역이나 서유럽이나 규제당국은 경쟁을 더 강화시켜서 엔드유저 가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으로 새로운 기술의 공급이 저지되는 단점도 있다. 경쟁이 커지면 투자가 억제되는 것이다. 규제가 경쟁심화를 시킬 수 있으나, 혁신은 방해한다. 물리적으로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차세대를 내다 볼 수 있는데, 이런 여건에서 버추얼 언번들링이 추진된다.

무선은 이야기가 다르다. 서유럽은 LTE 보급이 한창 성장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리소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오버로드 상황이 서유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 반면 아태지역 이동통신 보급을 보면 3G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 국가내에 이동통신망 사용자를 보면 아태지역이 빨리 증가되고 있는 반면, 서유럽은 유저 수가 안 늘어나는 이슈도 영향을 미친다.

북미지역과 서유럽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이 대역폭을 많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을 와이파이/무선랜으로 유도했다. 거기로 간 트래픽 보면 10~60% 까지 업로딩되는 걸 보게 된다. 이는 아주 많은 트래픽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커스터머 통제가 예전보다 많이 못하게 되었다. 이동통신망이 아닌 와이파이에서 하게 되면서, 자사 소유권 밖으로 나간 셈이다. 비록 LTE가 대역폭 스피드를 더 제공한다는 약속을 하고는 있으나, 대용량 데이터 사용에 따른 과금을 사용자가 원할런지가 문제가 된다. 유치 자체가 문제가 된 셈이다.

Asia Pacific's love of fiber access continues.  
GPON now ru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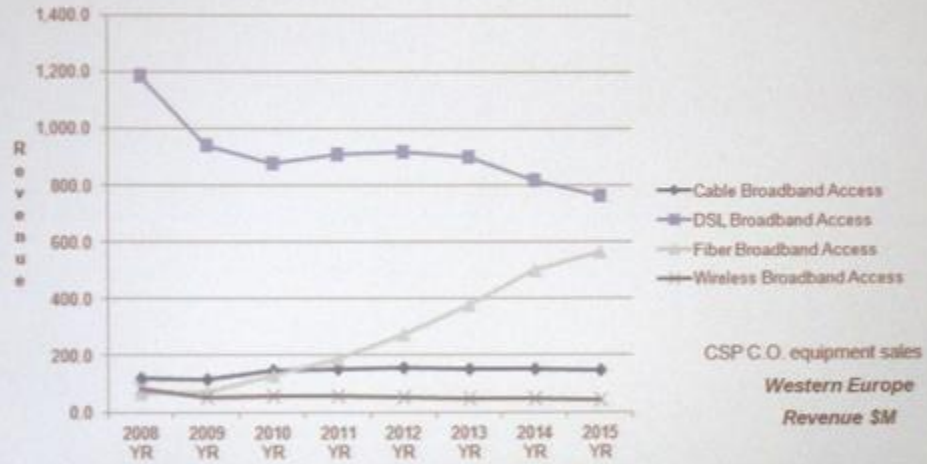


Source: Gartner (October 2011)



▲ 아태지역 유선 인터넷 부문별 매출 추세

## Compare to Western Europe where xDSL still ru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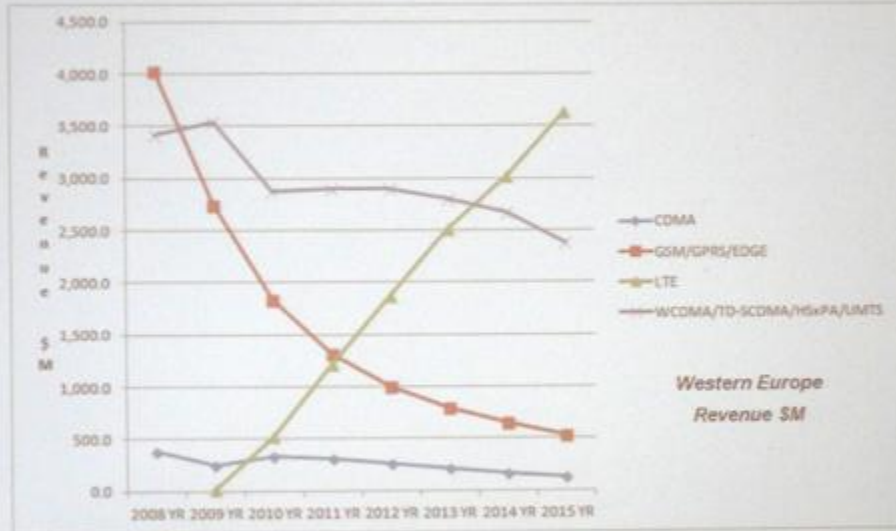


Source: Gartner (October 2011)

ACROFAN

▲ 서유럽 유선 인터넷 부문별 매출 추세

## Western Europe: LTE takes off



Source: Gartner (October 2011)

Gartner  
ACROTEAN

▲ 서유럽 무선 이동통신망 통신규격별 매출 추세

## Plenty of scope for 3G in Asia Pacific



Source: Gartner (October 2011)

ACROBATIC

### ▲ 아태지역 무선 이동통신망 통신규격별 매출 추세

Q1. 아태지역에서 규제가 큰 이슈가 되는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들 국가들은 서로에게서 배우는 게 있어 더 그렇다. 북미는 미국은 미국, 캐나다는 미국 상황을 본다. 유럽은 EU 차원에서 결정한다. 그런데 아시아는 전혀 다르다. 연합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제를 지역 절체에 걸쳐서 좌우하는 힘이나 기관도 없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 방대한 엔드유저에 의해 추진되는 게 아니라면 느리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해서 유무선 인프라 투자가 추진된다.

Q2. 아시아에서는 파이버채널이 더 저렴하지 않은가?

예 아니면 아니오. 일례로 태국에서 한다면 저렴하겠지만, 홍콩은 아니다.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고정 인프라를 디플로이할 때, 물리적인 부분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 도심이나 농촌 혼용이 있다면 전체 비용 중 60~70%는 케이블을 디플로이하는데와

프로젝트 관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장비비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진다. 장비 수명 등을 생각해야 되게 된다.

Q3. 각국이 파이버채널 투자를 전개하고 있다. 이런 롤아웃에 대한 자본투자를 이야기했는데, 타 지역보다 비용효과가 있긴 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레비뉴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가? 네트워크 트래픽 많을 때 어떻게 하는가?

레비뉴 기회가 있을 때에만 디플로이한다고 보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이 좋은 예다. 먼저 구축하고 서비스 개발, 보급했다. 투자를 개발할 때 매출기회 보지 않을까 싶다. 유선은 유선이다. 안정성과 신뢰성과 사용편의성이 있어야 된다. 잘 정의된 표준화된 기술인 3G, LTE, Fibre 등이 있어야 된다. 이들이 있어야 서비스 레벨을 약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자정부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전개가 가능하다. 또 비디오 서비스도 염두에 둘 수 있다. 각 가정마다 대역이 있어야 이런 게 가능하다.

브로드밴드 케이블로 비디오를 다운로드 한다고 해서 새로운 경제발전엔 기여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나, 와이파이는 경우마다 효용이 달라진다. 가트너가 본 것은, 서유럽/북미에서 마찬가지로 보는 것은, 대역폭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쓰는 걸 유저들이 참아낸다는 사실이다. 애플리케이션 대역폭이 적게 요구되는 것들은 보다 미션크리티컬해진다.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은 대역폭을 적게 필요로 한다. 이런 것들은 사업자들이 관리한다. 대용량 데이터 다루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